Asian Transplantation Week 2023
Nov. 15(Wed)~18(Sat), 2023
Conrad Seoul, Korea
Submission No.: CS10-9280
Session : Concurrent Symposium 10 (Coordinator)
Date & Time, Place : November 18 (Sat), 09:00-10:30, Room 5F-2
Session Title : How to maximize organ utilization in deceased donor for overcoming serious organ shortage

What can we do to improve the organ utilization of deceased donors?

Ji-Yeon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Republic of Korea

국내에서는 1999 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기기증을 전제로 한 뇌사를 인정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를 등록 관리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설립하였다. 1969 년 생체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장기이식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생체 이식이 뇌사자 이식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사장기기증은 인구 백만명당 8.56 명으로 미국 41.6 명에 비교하면 낮은 기증율을 보이고 있다. 2000 년 이후 이식대기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 년 기준 41,706 명이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뇌사장기기증자는 2016 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22 년 405 명의 뇌사자로부터 1,354 건 장기이식건의 장기기증이 진행되어 이식대기자와 뇌사기증자의 불균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명나눔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뇌사추정자 신고제 시행 등 뇌사기증자 증가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뇌사판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증자의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기증이 결정되어 적출된 장기가 이식대기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기증 장기의 상태의 불량 등으로 이식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건수를 줄이기 위하여 장기가 사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기증과 장기이식 과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자관리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과 수많은 의료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장기기증의 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기증된 장기의 성공적인 이식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의료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